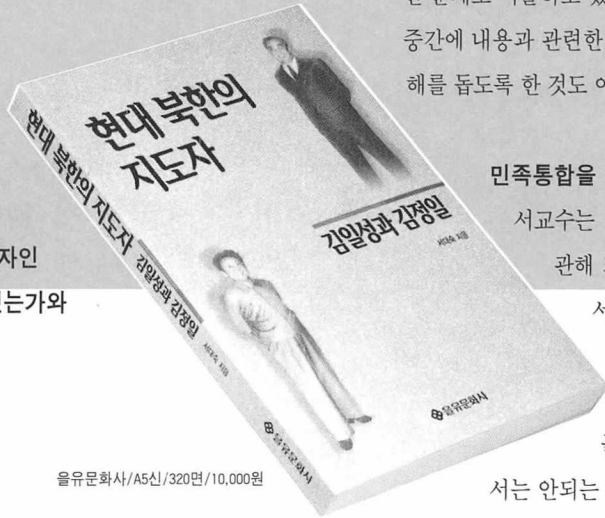


## '지도자론'으로 읽는 북한의 현대사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을 읽고

고유환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적인 북한 연구가인 서대숙 교수가 북한의 지도자를 분석한 책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서교수는 이 책에서 북한의 지도자인 '김일성 - 김정일'이 어떤 국가를 건설하려고 고군분투했는가와 21세기 북한이 개척해나갈 미래상을 전망하고 있다.



울유문화사/A5신/320면/10,000원

사를 김일성-김정일 두 지도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책의 중간에 내용과 관련한 자료 사진들을 삽입해 이해를 돕도록 한 것도 이 책의 장점이라 하겠다.

민족통합을 위해 새롭게 노력할 때 서교수는 '김정일과 북한의 장래'에 관해 기술하면서 북한전문가로서 김정일에 대한 충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김정일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중에 버려서는 안되는 전통과 완전히 개혁할 것, 그리고 김정일이 독창적으로 새로 시작할 것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정치·지도이념·경제·외교·군사, 그리고 김정일의 지도력과 지도방법 등을 개혁해 '김정일 시대'를 창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교수는 김정일에게 아버지의 혁명세대가 선호했던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고 민족통합에 진력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세대교체를 계기로 남북한의 지도자와 분단 반세기 동안의 부자연스런 삶을 청산하고 민족통합의 새로운 노력을 시작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북한도 이제 서교수의 충고를 받아들여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남북한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북한연구는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한계가 많았다. 그리고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알기 쉽게 기술한 책이 많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서교수의 저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승자의 기록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옥에 티라면 '김정일의 과제' 부분에서 이미 권력승계가 완료되고 헌법이 개정됐음에도 폐지된 국가주석직과 정무원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우리의 반쪽이다. 분단체제에서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사태와 현실에 무관심할 수 없다. 우리는 통일을 이뤄 함께 살아야 할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저 통일만을 외쳐 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세계적인 북한연구자인 서대숙 교수(미국 하와이대 석좌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가 북한의 지도자에 관한 책을 한국에서 발간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 북한 역사 통사적으로 정리해

서대숙 교수는 한국 공산주의운동사와 북한의 지도자인 김일성-김정일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북한연구자 중 한 사람이다. 이 책은 일본의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에서 출판한 두권의 저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일의 북조선》을 우리말로 옮겨 출간한 것이다. 그동안 서교수는 주로 영어와 일어로 북한관련 저서를 출판해 일반독자들이 접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한국의 북한연구자들과 독자들이 우리말로

된 서교수의 저서를 접하게 돼 펍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흔히 북한을 '김일성-김정일의 나라' 또는 '주체의 나라'라고 한다. 그만큼 북한체제에서 지도자와 지도사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해 김일성-김정일 유일지도체제(유일체제)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북한을 이는 지름길은 지도자와 지도사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책은 김일성의 항일투쟁에서 북한정권 수립, 한국전쟁, 중·소분쟁과 자주노선, 주체사상의 태동배경과 후계체제 구축,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과 북한의 장래 등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책 한편이면 북한역사의 큰 줄기와 김정일정권의 장래를 이해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통사적(通史的)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밝혔듯이 독립운동이나 북한의 정치과정을 학문적으로 분석한 연구서라기보다는 일반인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북한의 특색과 장래에 대해 쓴 글이다. 이 책은 북한의 지도자들이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고군분투의 궤적과 21세기 북한이 개척해 나가야 할 미래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북한의 역